

金の透彫라는 사실이다. 이透彫는 원래龍形에서脫化한진려渦紋化의 것으로서 各其의先端은 잘 꼬부라져서 纖細한趣態를 보이는 것이다. 右의透彫紋은有名한慶州金冠塚金冠의烏帽子와 近似한冠帽에表現되고 있는 것과 同系の紋樣인바 그에比한다면 形式化와 便化한 것이 눈에 띄인다.

冠帶左右에 있는垂下飾은太環을 가운데 두고 길고 가는管과花蓋飾을 달은 것으로서 現在一

方이半쯤 缺損되고 있다. 그러나 作은 도리어 簡素한다.

其二는 一昨春 奈良의 玉林善太郎氏가 齋來한 것으로서 또한 靑綠鏤가 많고 土中古品인 바 앞의冠과는 달리 缺損이 있다. 其의 全形을 알 수 있는 下方의 上邊이 折曲되어 있는 冠帶의 徑은 約十八cm 幅은 三·五cm 로서 그 內側에는 위에 辻金物樣의 裝飾이 있었던 形迹을 남긴 半球形의 十字帶의 帽部를 만든 것은 前者와 같다. 但이冠에서는 周緣의 立學는 顯著히 相違되고 있다. 即 四方에 있는 이 立學는 모두 上方이 缺損되고 있으나 薄板作의 가는筒形—그長約七cm—의 上方을

十條로 切振하여 花總狀으로 한 것이 珍貴하다. 그것이 二個의 鉤으로 帶에 留置되어 있다. 立學로서의 意匠으로서 하나의 新例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細長한 左右의 垂下飾은 殘缺되어 있는 위에 出土後의 恣意의 修補가 눈에 띄우나 細長한 그 垂飾은 원래 가는 針金作의 所謂花蓋를 가운데 놓은 것을 連結한 方式인데 一方에는 連結한 그것이 四個 남아 있다. 作은 앞의 完好한 冠帽의 것보다도 잘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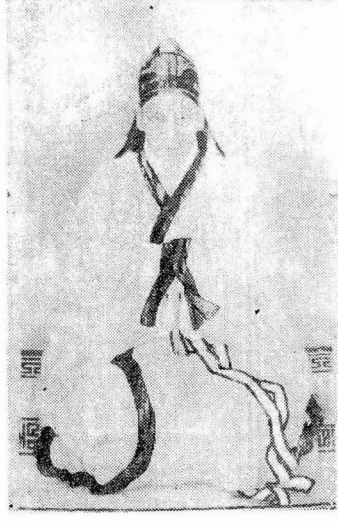
(一九六七年一月三日)

蘭谷 宋炳華肖像畫

李 殷 昌

大田市史編纂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大田地方을 踏查하다가 大德郡山內面二沙里(舊公州牧山內面沙寒里)에서 蘭谷 宋炳華先生肖像畫를 調査할 수 있었다. 現今 그 後孫과 門人들이 先生의 生時의 講學處인 咏歸臺에 做華堂을 建立하여 奉安하고 있다. 이는 韓末의 肖像畫로서 또 그 畫員의 名聲으로서 그 肖像을 그리게 된 動機等으로 보아 參考가 될 만한 것이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宋先生①의 名은 炳華이요 字는 晦卿

이며 號는 約齋 또 는 蘭谷이며 恩津人이다. 哲宗二年 壬子(西紀一八五二年)에 出生하여 栗谷·尤庵의 性理學과 禮文을 自勉하고 淵齋 宋秉璿②과 相通하여 斥邪衛正의 運



動에 參與한 諸學者의 一人이라 하겠다. 곧 國運이 기울어가는 高宗四十二年 乙巳(西紀一九〇五年)에 薦擧로 靖毅郎을 除授하였으나 不就하고 兼하여 官服을 下賜하였으나 奏疏辭免하였다. 그리고 學行으로 當世에 이름이 있고 平生 鄉里의 吟誦臺에 諸生을 모아 講學에 힘썼으며 乙卯(西紀一九一五年)에 卞하니 蘭谷集 數卷이 있다.

肖像畫는 李朝末 有名한 畫員인 石芝蔡龍臣이 그린 것이니 곧 前述한 바와 같이 宋先生이 靖毅郎을 除授되었으나 不就하고 官服을 下賜하였으나 奏疏辭免하던 乙巳·丙午年間에 石芝 蔡龍臣이 定山縣監^③으로 在任하였는데 이 무렵에 自請하여 그렸다 한다. 畫幀은 長이 一三五cm 幅이 七三cm의 絹本淡彩로 簇子로 만들었다. 팔짱을 끼고 花紋席위에 正座한 姿勢가 端雅하고 恒常 一舉手 一投足을 慎重히 하는 그 一貌가 干先 兪보인다. 網巾에 幅巾을 쓰고 深衣를 着한 儒生의 典型的인 服飾을 하였는데 素朴한 表現이 넘쳐 흐른다. 그리고 이 肖像畫의 모든 精力이 集中되어 生動하는 表現이 顔容에 나타나고 있으니 곧 六十頃에 가까운 老顏의 주름살이 보이고 幅巾 밑으로 들어나 보이는 頭髮과 등성 한 수염에 若干의 白毛가 섞여있는데 그 面相에 溫厚한 德氣가 풍기는 가 하면 兩眼의 四明相과 더불어 強한 正義感이 흐른다. 마치 肖像畫의 主人公의 學問·德行·義理心等に 接近된 作者의 崇高한 性品이 나타난 筆致라 하겠다. 그리고 作者는 洪景來亂에 義로운 行動을 한 廳妓 崔紅蓮^④에게 깊이 느낀 바 있어 그의 肖像畫를 그린 일이 있는데 여기 宋炳華先生의 學問·德氣 또는 乙巳·丙午年間의 正義感에서 取해진 處事等に 感動되어 그의 肖像畫를 自請하여 그리었다는 精神은 畫風과 더불어 빛이 나고 있는 것이다.

作者 石芝 蔡龍臣은 憲宗十四年 戊申(西紀一八四八年)에 出生하여 庚戌 國恥 四年後인 西紀一九一四年에 卞하니 九十四歲를 누리는 동안 李朝末의 畫員으로서 高宗의 御容을 그린바 있어 御容畫師가 官職에 任命되는 準例에 따라서 高宗四十二年 乙巳(西紀一九〇五年)로 부터 翌年인 丙午까지 定山縣監으로 있었으니 官職을 얻은以後도 作品生活을 계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石芝의 作品으로는 有名한 「雲娘子

崔紅蓮肖像畫」를 비롯해서 적지않은 肖像畫作品이 京鄕에 傳해 왔으며 여기 또 「蘭谷 宋炳華肖像畫」가 添加된 셈인데 石芝는 李朝末 肖像畫家로서 代表的인 사람이라 하겠다.

〔追記〕 蘭谷 宋炳華肖像畫는 調査 當時에 이 肖像畫의 來歷을 잘 알고 있는 그의 傍系孫을 通하여 石芝 蔡龍臣 作임을 確認하였다.

註

① 宋蘭谷行狀

「宋炳華 字晦卿 號蘭谷 恩津人 降時父夢 黑龍盤繞內室大梁 朱子至 家命小字賢錫 八歲就塾師 學了讀通史三冊；略：讀栗谷擊蒙要訣 尤庵已丑封事 歎曰 栗翁 我東孔子 尤翁我東朱子 欲學孔朱 當自栗 尤始作願學歌而勉從遊荀庵申文敬應朝淵齋 宋文忠秉璫身心性情之 蘊人倫百行之著 與夫華夷正邪之分反復揚於隋事融徹諸賢敬重詔以 斯文有託高宗乙巳繡衣李範祖牧使宋秉琮參贊郭鍾錫余判尹昌燮薦于 朝 特除靖陵參奉不就 禧陞六品因遣官敦召兼賜官服表裏即附奏又舉 辭疏云」

② 玄相允著 朝鮮儒學史 「斥邪衛正的 運動」條

③ 拙著 青陽郡誌 「人物——定山縣先生案——」條

④ 雲娘子 崔紅蓮肖像畫 (國立博物館藏) (一九六四年 二月 一日 朝鮮日報 「古美術」에 나타난 韓國의 美女^②條 參照)

⑤ 金元龍 「李朝의 畫員」(鄕土史會 第十一號條 參照)

南原 新村里의 石佛坐像과 塔材

鄭 永 鎬

全北道 南原邑에서 東쪽 江을 건너 朱川面 龍潭寺로 가는 觀光道路 約 一km 地點인 新村里 탑상골(塔像谷)에 石佛一軀와 塔材가 遺存한다. 周圍 耕作地에서는 瓦片이 出土되어 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며 이곳 地名인 「탑상골」의 由來도 이 遺物에 依한 것이 짐작된다. 教育長 金漢植氏의 말에 依하면 四十餘年前 어린時節부터 現位置에 있어서 洞民들이 禮